

# 프랑스가 구상하는 유럽의 안전보장

프레드릭 보즈 지음 「프랑스와 나토」

이봉호

매일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선진국들 중에서 냉전이 끝나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입장에서 있지 않는 나라는 프랑스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최강국은 아니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종식이 프랑스로부터 독자행동의 여지를 빼앗아갔다는 것이 프랑스 정치가들의 입장이다.

최근 프랑스에서 발간된 「프랑스와 나토(NATO)」(La France et L'OTAN, 매송社刊)라는 책은 이와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새로운 관계를 파헤친 역작으로 꼽힌다.

저자 프레드릭 보즈는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략문제 전문가이다. 냉전종식에 따라 독자행동의 여지를 박탈당한 프랑스에 있어서 서유럽동맹(WEU)은 안전보장 측면에서 유럽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프랑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WEU를 쇄신하고 나토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위치시키고 싶어하는 프랑스에 대해 영국은 나토를 중심으로 안보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저자는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에 의한 걸프전쟁이 여실히 보여준 바와 같이 안전보장 측면에서 유럽의 독자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프랑스가 추구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자립된 유럽 고유의 안전보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나토가 동서융합의 시대에 대응한 변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유럽안전보장은 여전히 잠재성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때문에 프랑스가 주장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가까운 장래에 WEU가 유럽안전보장기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저자는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혹시 성급하게 일을 추진할 경우 나토와의 대립을 깊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프랑스가 원하는 체제를 성급하게 만들기보다 유럽 안전보장의 기능면에서 실적을 쌓아올리는 것이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위성에 의한 군축합의 검증, 위기관리계획의 수립을 꼽고 있다. 저자는 94년으로 예정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공동의 관측위성 발사가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식은 죽」이 불러일으킨 중국의 문예논쟁

중국에서는 정치적 권력투쟁이 문화계에 파급을 미치는 것이 진기한 일은 아니다. 문화혁명의 발단이 됐던 역사극 「海瑞罷官」 비판이 그 전형이었지만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이 격화됐던 지난해 8월 소련정변 후에도 정치상황을 반영한 문예논쟁이 야기됐다.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보수파. 표적이 된 것은 중국의 저명한 작가이며 89년 6월 천안문사태 이후 문화부장(장관급)을 사임한 王蒙의 단편소설 「堅硬的 稀粥」(식은 죽)라는 작품이다.

천안문사태 직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식사생활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려고 했던 「四世同堂」이라는 대가족의 요란법석을 희극적인 터치로 묘사한 것이다. 할아버지가 잡고 있는 식사메뉴 결정권을 가장 어린 자식에게 위양하여 죽 대신 빵과 버터, 계란이라는 서양식 메뉴가 선택되자 가족전체가 몸에 좋지 않라며 선거를 실시하면서 일대 소동이 벌어지게 된다.

이 작품은 지난해 「小說月報」에서 89년~90년도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같은해 9월 14일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文藝報」에 독자가 보낸 편지 형태로 「중국에는 개혁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 편지는 중국 일반인은 입수할 수 없는 대만잡지에 게재된 「암묵적으로 鄧小平이 지도하는 중국공산당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는 서평까지 인용하고 있어 단순한 일반독자의 비판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홍콩에서는 王蒙을 대신해서 문화부 부장대리로 취임한 보수파 賀敬之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王蒙은 「문화혁명과 같은 방법이다」라며 그러한 움직임을 비판하고 즉각 반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법원에 제소하기까지 했다.

홍콩에서 금년에 출판된 「堅硬的 稀粥」(天地圖書 刊)은 王蒙의 반론과 제소장 등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 중국에서 일고 있는 일련의 논쟁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등소평의 지시로 개혁파가 득세하면서 중국 국내에서도 최근 「중국당대저명작가신작대계」시리즈의 하나로 「堅硬的 稀



히틀러와 그의 '대학살'로 희생된 유대인들.

粥」을 포함한 王蒙의 단편집 「我又夢見了」가 발매되고 있다.

## 「히틀러와 스탈린, 두가지 인생」

독일에서 영어로 된 신간이 베스트셀러로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역사가 앨런 블록이 펴낸 「히틀러와 스탈린, 두가지 인생」(크노프 刊)은 베스트셀러 상위를 차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우선 39년 8월 독-소불가침조약 교섭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다.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는 것은 히틀러가 조약체결 직전까지 「스탈린이 유대인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저자는 히틀러가 자신의 카메라맨을 모스크바로 급파하여 스탈린의 얼굴, 특히 귀부분을 클로즈업하여 사진을 찍어 오라고 명령했다는 비화를 소개하고 있다. 히틀러는 스탈린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조약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 책의 대부분은 두 사람의 독재자가 가지고 있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반유대주의자이며 국수주의자, 그리고 편집광이었다는 점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특히 두 사람은 부하를 하찮은 것으로 간주했으며 단순히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冷酷無情」이야말로 두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덕목이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스스로를 신의 뜻에 따라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덕목은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과시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함께 저자는 스탈린은 히틀러보다 두배가량 사람을 죽였지만 악랄하다는 점에서

는 히틀러가 스탈린을 훨씬 능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로 저자는 나치스에 의한 대학살은 학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는데 반해 스탈린의 숙청은 「정치적, 심리적인 논리를 동반한 목적을 추구했던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히틀러는 독일대제국의 건설을 꿈꾸었으며 스탈린은 소련의 근대화를 꾀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으며, 히틀러는 41년 6월 독-소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한 것이 그의 인생에서 최대의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고 저자는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또 스탈린이 히틀러와 맺은 「악마의 밀약」이 깨진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까지 후회했으며 전후에도 가끔씩 「독일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무적이었을 텐데」라고 술회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다.

독-소조약 체결로부터 반세기 남짓, 소련 연방은 해체되었으며 독일은 통일을 실현했다. 역사는 역시 가설을 허용하지 않는 모양이다.

## 인도네시아 군부의 정치적 역할

총병력 40만을 자랑하는 군부는 인도네시아의 최대 정책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전쟁시대에 얻은 명성 덕분에 국방치안과 함께 사회정치면에서의 역할도 담당하는 「이중기능론」이라는 명명하에 인도네시아 군부는 의회에서 1백개 의석을 보증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최대 여당은 「직능그룹」이라는 명칭의 「콜카루」이지만 수하르트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이 정당의 발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군부세력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군부의 이같은 「이중기

능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논의가 최근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장기개발정책으로 사회기반이 발전됨에 따라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한층 더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새로운 정치참여 방법을 모색하는 신세대 군부세력의 대두와도 무관치 않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출간된 「ABRI(군인)의 정치적 역할」(CV Haji, Masagung 刊)이라는 제목의 책은 인도네시아 군부가 주장하는 이중기능론의 역사적 유래, 현상, 장래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카자카르타 국립교육대학 사회학과 무하메드 루스리 칼림 교수. 저자는 이중구조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문시되어 왔고 앞으로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은 사회정치적 측면에서의 군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특히 '골카루'와 일체화된 군의 정치적 존재방식에 대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조직"을 표방하고 있는 군부의 대의명분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군부의 이같은 자세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특정세력을 옹호하는 것으로 그치게 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골카루'가 군부에서 독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함께 저자는 사회정치적 측면에 대한 군부의 관여는 군사독재주의의 고양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에게 계속 심어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인도네시아 사회가 급속히 변질되고 있으며 군부의 최대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의 국제적인 퇴진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감안, 군부에 대해 정치적 역할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데이비드 오웬의 「선언의 시기」

영국 총선거는 지난 4월 9일 치뤄졌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현역 하원의원 가운데 83명이나 의원직을 사임했다. 이 숫자는 하원의원 전체의 13%에 달하는 것이다. 영국 총선 유세전이 한창이던 때에 「선언의 시기」(Time to Declare, 펄컨 刊)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던 데이비드 오웬 전사회민주당 당수도 그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53세라는 약관(?)의 나이에 하원의원직에서 용퇴했다.

대처 前수상(66), 하우 前부수상(66), 로슨

前재무장관(60), 데이비드 前보수당 원내총무(60) 등 거물급 의원들은 거의 60대에 정치무대에서 퇴장했다. 대처정권 당시 각료 15명을 포함, 각료직을 역임한 정치가는 35명에 지나지 않는다. 오웬 前당수 등 50대에 그만둔 정치가는 10명, 40대의 한창 나이에 정치적 야망을 포기한 사람도 6명이나 된다. 이같은 태도는 "이제 충분히 국민에게 봉사했다"라는 입장에서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에 3수씩이나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가들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선언의 시기」의 저자 오웬은 28세에 노동당 의원에 당선됐으며 39세에 외무장관으로 발탁됐을 정도로 노동당의 호프였다. 그러나 노동당의 좌경화에 염증을 느낀 그는 42세가 되던 81년 동료의원 3명과 함께 노동당을 탈당, 사회민주당을 창당했다.

노동당으로부터 '4인방'이라고 비난을 받던 시기에 그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탈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포크랜드전쟁전 아르헨티나의 협박에 대처했던 외무장관으로서의 느낀 바도 서술되고 있다.

87년 선거에서 자유당과 연합, 22개의 의석을 획득했지만 이듬해 많은 의원들이 사회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유당에 합류하자 신생 정당인 자유민주당의 세력은 커진 반면 사회민주당은 허물만 좋은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당수였던 오웬의 정치은퇴로 사회민주당은 사실상 소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영국 3대 정당 당수들을 보면, 보수당의 메이저 당수가 49세, 노동당의 키녹 당수가 50세, 그리고 자유민주당의 애쉬다운 당수가 51세이다. 이 책의 저자 오웬의원도 이들과 같은 세대였지만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의식했던 정치가 오웬은 자신의 일대기를 저술하고 정치무대에서 결연히 떠났던 것이다. 역시 민주정치의 발상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대주의적 발상일까.

### 옛 일본군 자취 추적한 「태양의 병사」

세계 제2차대전에서 패전한 후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날 또다시 일본이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PKO(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안이 일본의

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됨으로써 과거 일본皇軍의 침략을 받았던 주변국은 물론 세계각국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미국 랜덤하우스에서 출간된 「태양의 병사」(Soldiers of The Sun)라는 책은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일본에서는 과거 군국주의의 악역에 대한 혐오감에서 일본군대에 대한 연구서가 드문 실정이며, 그 분야에 대한 연구자의 경우 일본 학계에서 따돌림을 받아 고립감을 느낄 정도로 애써 과거지사를 들추어내지 않으려는 것이 일본 학계의 분위기이다.

「日本帝國陸軍의 興亡」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日本異質論의 뿌리를 일본제국 육군에서 찾아내고 있다. 일본, 홍콩 등 아시아지역에서 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역사연구가 메이리온 하리즈, 스지 하리즈 부부는 많은 옛 일본인들과의 대화와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육군의 자취를 추적하고 있다.

저자들은 옛 일본군이라는 존재는 분명하게 일본국민의 정신구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연구대상이라

고 강조하고 있다.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옛 일본군은 서서히 그 세력을 키워갔으며 정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화학무기를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포로들을 학대 및 학살했으며 종군위안부 등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만행을 저자들은 날날이 폭로하고 있다. 이와함께 저자들은 옛 일본군이 이같은 만행으로 세계군대사상 유례없는 특수한 존재로 자리매겨지고 있으며 그 특수성은 옛 일본군이 국가중의 국가로서 독립된 존재였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군도 비슷한 존재였지만 옛 일본군과 크게 다른 점은 독일군 장교들에게는 직업군인으로서의 기질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비해 일본군에게는 그 같은 프로의식이 육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저자들은 비교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외국에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영업 및 편집사원 모집

본사는 이공도서 전문출판사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경력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구분	자격
영업사원	초급대학 이상자로서 이공계출판사 영업 유경험자
편집사원	이공계 대졸자로서 경력자(초보자도 가능함)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마감일 : 1992년 7월 20일까지
- 보낼 곳 : 110-130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245번지



圖書 東明社 出版

電話 : (732)3455·7497·7731(739) 5240 番, FAX : 737-3524 番